

인촌에게 보낸 옥중 서한

사(社)를 떠난지가 벌써 한달이요, 나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이 여전하시며 사내의 모든 형제들도 다름없이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분투하옵니까. 새 집 이사는 예정과 같이 11일에 아무 고장없이 순성되었어온지 해를 거듭하여 깨어진 창과 무너진 벽만 남은 낡은 집에서 고생을 하다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튼튼하고 쓸모좋은 새 집으로 옮겨간 쾌감과 기분이 과연 어떠합니까. 동고(同苦)하던 사내 여러 형제의 즐거워할 광경을 상상하니, 그윽히 적막한 중에도 저는 기꺼운 웃음을 웃게 되나이다. 이것이 모두 형님께서 평소애 땀 흘리고 애쓰시던 보상임을 생각하옵고 더욱 건강과 행복을 비웁니다. 저는 절대한 운명의 지배 아래서 외로운 그림자를 벗삼아 엄한(嚴寒)의 폭위(暴威)에 저항을 계속할 뿐이오나 다행히 별고 없아오니 안심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시키는 일을 하고, 먹고 자던 나머지, 한 두시간을 이용할 수 있아오니 책이나 많이 보내 주십시오. 그전에 보낸 것은 다 받았아오니, 윤리학(倫理學), 동서철학사(東西哲學史), 서양역사(西洋歷史), 서양문명사(西洋文明史), 철학개론(哲學概論) 등으로 대개는 우리집 책상에 있아오니 그중 페이지 수효가 많은 놈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下略)

1926년 12월 16일 상오 11시

서대문형무소에서 송진우